

송주호의 테마 클래식 8 - 가을

글.

송주호 음악칼럼니스트
EBS 기술기획부 선임

3년 전 체코의 프라하를 방문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과거의 모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모습은 잊을 수 없는 감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넘치는 관광객으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카렐 교, 난쟁이 마을과 같은 뒷골목이 흥미로웠던 프라하성, 블타바(도나우)강의 굽이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비셰라드 언덕 등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프라하 한복판에 있던 알폰스 무하의 전시관도 기억에 남습니다. 체코 출신의 화가인 무하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파리에서 그린 연극 포스터가 대박이 났죠. 그래서 그를 아르누보의 대표자이자 일러스트의 창시자로 손꼽기도 합니다. 무하의 유명한 그림 중에서 '사계'가 있습니다. 네 폭의 길쭉한 족자에 요염한 자태를 한 여인들이 각 계절의 자연을 배경으로 그려져 있죠. 흰 꽃으로 장식한 봄, 강가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는 여름, 포도를 수확하고 있는 가을, 그리고 긴 천을 온몸에 두르고 눈꽃 사이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는 겨울. 글자 하나 적혀있지 않아도 이 그림의 메시지에 공감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자연 환경과 생활 리듬은 음악가들에게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으로 꼽히는(1986년 8월 22일 동아일보에 발표된 음악동아와 KBS 1FM 공동 설문조사 결과가 지금도 흔히 인용되고 있죠. 하지만 2015년 KBS 1FM에서 조사한 결과에는 30위에도 들지 않네요.) 비발

디의 <사계>가 그중 하나죠. 이렇게 사계절을 소재로 하는 음악을 비발디만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은 같은 제목으로 오라토리오를, 러시아 최초의 국제적 작곡가 차이코프스키는 피아노 모음곡을, 러시아의 마지막 낭만파 글라주노프는 발레음악을, 프랑스 6인조의 리더 다뤘스 미요는 다양한 협주곡 세트를, 우연음악의 창시자 존 케이지도 발레음악을, 뒷골목 문화인 탱고를 예술로 끌어올린 피아졸라는 탱고 앙상블곡을, 미니멀리즘의 거장 필립 글래스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북유럽 신낭만의 기수 바스크스도 피아노 모음곡을, 영국의 인기스타 하워드 구달은 첼로 협주곡을, 미국의 클래식 루키 데이빗 리드윅은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곡들도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알폰스 무하의 '사계'



1



2



3

1. THE HARVEST CRADLE
(JOHN LINNELL)
2. THE AUTUMN HUNT
(GEORGE CARL KOCH)
3. 안토니오 비발디

>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바장조 '가을', RV293 (1723~25)

이 중에서 안토니오 비발디(Antonio Vivaldi : 1678~1741)의 바이올린 협주곡 <가을>을 먼저 소개합니다. (비발디 <사계>의 음악적 특징은 3월호 '봄'편을 참고하세요.) 가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우선 고정적인 이미지, 익은 곡식들과 추수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에 박히도록 들은 말, 바로 독서의 계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독의 계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발디가 살았던 시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냥'이죠. 겨울을 나기 위해 포동포동 살을 찌우고 동작이 둔해진 가을철 동물들로, 가을은 서툰 사람들도 도전해볼 만한 사

냥의 최적기였습니다. 비발디의 <가을>의 주제 역시 추수와 사냥입니다. 그래서 전원을 상징하는 조성인 바장조를 사용한 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 곡에 붙어있는 소네트를 보겠습니다.

제1악장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은 마을사람들은 흥겨운 춤과 노래로 은혜로운 수확을 즐긴다. 어떤 농부는 바쿠스의 술로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기도 한다.

제2악장 춤과 노래로 기쁨을 더하고, 잔잔한 산들바람은 사람들의 기분을 더욱 좋게 한다. 달콤한 잠으로 피로를 씻는다.

제3악장 새벽이 되자 사냥꾼들은 뿔피리와 총을 들고 사냥개를 앞세

위 숲속으로 들어간다. 짐승들이 놀라 도망가자 사냥꾼과 개는 그 뒤를 쫓는다. 드디어 지쳐버린 짐승들은 끝내 갈 길을 잃고 험덱이며 쓰러진다.

////////////////////////////////////

비발디는 악보에 이러한 소네트를 괜히 적어둔 것이 아닙니다. 음악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묘사했던 것이죠. 1악장에서는 흥겨운 농촌의 춤곡이 들리기도 하고 곤히 잠든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2악장에서는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를 산들바람과 역시 잠에 빠진 모습들, 그리고 3악장에서는 뿔피리 소리와 짐승들의 지친 모습을 묘사했지요. 이렇게 문학적 이야기를 음악적으로 풀어낸 음악을 '표제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악장은 다른 작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독주 바이올린이 주선율을 연주하고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독주의 선율은 오케스트라와 거의 구분되지 않고 모호하면서 몽환적인 음향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베토벤의 <유령 삼중주>의 2악장과 비견되며, 20세기의 음향음악과도 유사합니다. 비발디의 음악적 상상력이 대단히 남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악장이죠.

추천 영상 : youtu.be/zWHLZ8sLTdA?t=21m33s

> 하이든

오라토리오 '사계', Hob. XXI:3 중 3부 '가을' (1801)

17, 18세기는 오라토리오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작곡가들이 오라토리오를 남겼습니다. 오라토리오란 독창자와 합창과 관현악이 등장하는 가장 큰 편성의 작품이기 때문에, 능력의 최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궁극의 장르였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오라토리오라고 하면 성경의 내용을 주제로 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오라토리오'라는 말 자체가 '오라토리움'이라는 가톨릭 성당의 기도실 명칭에서 유래했기 때문이죠. 16세기 후반 이 방에서 불리던 성가를 '오라토리오'라고 불렀고, 후대에 확대된 것입니다. 오라토리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헨델의 <메시아>입니다. 연말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이 곡을 앞다투어 연주하고 있죠. 요제프 하이든(Joseph Haydn : 1732~1809)도 <천지창조>라는 걸작 오라토리오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의 큰 성공에 힘입어 곧 오라토리오



4. 사냥 팡파르를 연주하는 내추럴 혼
5. 요제프 하이든

<사계>를 완성했죠. 이 곡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성공적이었지만 <천지창조>가 워낙 큰 성공을 거두어서 그 빛에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오라토리오’라고 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소소한 농부들의 삶을 노래하다 보니 흥미를 끄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천지창조>에 못지않은 작품성을 가진 걸작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이든의 제자인 지기스문트 반 노이콧은 “이 걸작에서 하이든은 영혼의 가장 내밀한 곳으로부터 말하는 것 같다.”라고 평했습니다. (제자라서 스승의 작품을 좋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이 작품은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을은 수확의 기쁨과 농부와 연인의 사랑, 사냥, 포도주 축제 등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각 부분이 가사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만, 특히 사냥 부분이 힘찬 리듬을 가진 금관의 팡파르로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하이든은 이 부분에서 혼(horn)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은 본래 사냥을 떠날 때 부는 뿔피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럽인들에게 혼은 기본적으로 사냥을 상징하는 악기입니다. 오늘날에는 3.75m의 관을 둘둘 말고 음정을 쉽게 내기 위해 피스톤을 단 ‘F조 프렌치 혼’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이든이 활동하던 18세기 후반만 하더라도 호른에 피스톤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뿔피리처럼 입술의 움직임으로 모든 음정을 내야 했죠. 오늘날에는 이러한 과거의 호른을 복원하여 연주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날 이러한 악기를 ‘내추럴 혼’이라고

부릅니다. 추천 영상은 사냥과 포도주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내추럴 혼의 모양과 소리, 연주법 등을 잘 살펴보세요.

추천 영상 : youtu.be/RyczpE0ShHY

> 차이코프스키

사계, Op. 37a 중 8~10월 (1876)

표트르 일리히 차이코프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 1840~1893)도 비발디만큼이나 한국인이 매우 좋아하는 작곡가입니다. 그의 교향곡이나 협주곡은 국내 오케스트라의 단골 레퍼토리이고, 실내악곡인 <피아노 삼중주>와 <피렌체의 추억>도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곡은, 두 개의 피아노 소나타와 아름다운 성격소곡이 적지 않음에도, 거의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차이코프스키의 <사계>는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곡으로서 그나마 자주 연주되는 작품입니다.

이 곡은 1875년에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발행되던 음악잡지 ‘누벨리스트’의 편집장인 베르나르트의 위촉으로 작곡되었습니다. 당시 피아노 소품은 모두에게 환영받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애호가들은 소나타와 같은 어렵고 긴 작품보다는 연주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고 짧고 가벼워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소품의 악보를 많이 샀고, 작곡가들은 작곡하기가 수월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던 때문이죠. 차이코프스키는 당시 재직 중이던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의 봉급이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부수입을 원했고, 출판사도 아마추어가 연주할 수 있는 소품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트가 잡지의 부



6

6. 시를 낭독하는 발렌티나 리시차
7.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7

8. 반도네온을 연주하는 아스토르 피아솔라
9. 하워드 구달



록으로 매달 시와 함께 피아노 소품 한 곡씩을 넣자는 제안에 차이코프스키는 흔쾌히 응한 것이죠. 그 덕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품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작곡가, 출판사, 애호가, 삼박자 윈윈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월간 잡지에 실렸다는 사실에서 눈치를 채셨죠? 이 곡은 각 달에 해당하는 열 두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코프스키는 다른 곡도 작곡해야 했고 여행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미리 작곡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매달 고심해서 작곡한 것처럼 출판사에 하나씩 하나씩 보냈습니다. 이 중에서 가을에 해당하는 곡은 8월 '추수', 9월 '사냥', 10월 '가을 노래'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현재 우리가 쓰는 율리우스력이 아닌 그레고리우스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날짜라도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화사한 반주를 가진, 누구나 편히 들 수 있는 산뜻한 소품으로, 이 곡들이 실린 잡지에는 베르나르트의 제안대로 다음과 같은 짧은 시구가 적혀있습니다. 8월과 9월은 앞의 비발디, 하이든과 상통하는 바가 있지만, 10월은 오늘날 이미지인 고독을 노래하는 것이 낭만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네요. 추천 영상은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발렌티나 리시차가 러시아어로 시를 낭독하고 연주합니다. 슬라브계의 끈적끈적한 어감도 함께 즐겨보세요.

추천 영상 : youtu.be/vc8Ju2t4jTk?t=30m03s

8월 추수 추수할 곡식이 자라/여러 가족들이 큰 호밀을 잘라 쓰러뜨

린다./함께 건초더미를 쌓아라./운반차로부터 밤새 음악을 울리며. (Aleksey Koltsov)

9월 사냥 때가 되었다/혼이 울린다/사냥복을 입은 사냥꾼들이 말을 타고 산에 오른다./이른 새벽에 사냥개들이 된다. (Alexandr Pushkin, Graf Nulin)

10월 가을 노래 가을, 우리 불쌍한 정원은 모두 쓰러지고/노란 잎사귀들이 바람에 날린다. (Aleksey Nikolayevich Tolstoy)

> 피아솔라

향구의 가을 (1969)

아르헨티나에서 탄생한 최고의 콘텐츠 탱고. 사실 탱고의 탄생은 매우 음울했습니다. 19세기 말 아르헨티나의 뒷골목에서는 원주민들과 유럽의 이민자들, '크레올'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혼혈, 그리고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뒤섞여 향수를 달래면서 고단한 삶을 위로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춤을 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유흥을 즐기며 음악이 혼합되면서 탱고가 탄생한 것이죠. 20세기 초 탱고는 북미의 재즈와 같이 남미를 대표하는 장르가 되었고, 많은 전문 탱고 악단들이 아르헨티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 아스토르 피아솔라(Astor Piazzolla : 1921~1992)도 그 일원이었죠. 그런데 피아솔라의 탱고에는 전통 탱고 음악가들의 음악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뉴욕의 뒷골목에서 살

면서 들었던 재즈와 클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탱고를 출 수 없는 당김음이 사용되고, 불협화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했습니다. 또한 클래식음악처럼 탄탄한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 선율은 영화음악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음악은 탱고의 혁명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가 연주할 때면 춤을 멈추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춤을 추기 위한 탱고가 아닌, 감상을 위한 탱고라는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 것이지요. 이러한 피아솔라의 탱고를 ‘누에보 탱고’(새로운 탱고)라고 부릅니다. 그는 파리에서 나디아 불랑제를 사사한 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와 1956년에 탱고 악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대부분 사람들은 탱고의 파괴라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고, 심지어 살해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주먹 좀 쓰던 파이터였던 피아솔라는 이런 일에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밀어붙였고, 지식인과 젊은이를 중심으로 열성팬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거장인 코플란드와 마르케비치는 파리로 떠나기 전부터 이미 피아솔라의 팬이었으며, 전설적인 재즈 뮤지션 디지 길레스피는 그의 음악을 듣고 ‘언빌리버블’이라고 외쳤을 정도로 지지를 얻었습니다. 결국 세계 모두가 사랑하는 탱고 예술의 모범이 되었고, 그의 후예들이 많이 탄생하여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작품 목록을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곡을 썼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주 연주되는 곡은 영화음악 <망각>과 함께 ‘항구의 사계’가 아닐까 싶네요. ‘항구의 사계’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절 인상을 담은 네 곡으로, 이들은 서로 관계없이 작곡되었습니다. <항구의 여름>이 가장 이른 1964년에 연극의 부수음악으로 작곡되었고요, 이어서 1969년에 <항구의 가을>이 작곡되었습니다. 이듬해에 나머지 두 곡 <항구의 봄>과 <항구의 겨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네 곡은 따로 연주되기도 하지만, 피아솔라 자신도 한꺼번에 묶어서 연주하곤 했죠. <항구의 가을>은 타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강한 악센트를 가진 화음과 격정이 가득한 선율로 시작하여, 우수에 젖은 서정적인 선율이 이어집니다. 극단을 오가는 이 두 멜로디의 지나친 극적 대비는 감상자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을 일으키곤 하죠. 피아솔라가 자신의 전설적인 오중주와 함께 탱고의 상징 반도네온을 직접 연주하는 영상을 보시죠.

추천 영상 : youtu.be/l0vveyYODpQ

> 구달

현과 첼로를 위한 모음곡 ‘사계’ 중 1부 ‘가을’ (2008-09)

영국의 작곡가 하워드 구달 (Howard Goodall : *1958) 에게도 ‘사계’가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신음악의 이론보다는 현대인의 감성을 터치하는 감성과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드라마를 갖추고 있어 인기를 얻고 있는데, 2013년에 BBC에서 ‘음악 이야기’(Story of Music)



하워드 구달의 다시 쓰는 음악이야기

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중적으로도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책으로도 만들어졌고, ‘하워드 구달의 다시 쓰는 음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우리에게도 친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계>는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영국의 ITV1의 TV 프로그램을 위해 작곡되었습니다. 이 곡은 비발디의 곡처럼 협주곡으로 되어있고요, 각 계절을 제목으로 하는 네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죠. 바이올린 대신 첼로가 독주악기를 맡는 것이 다르네요. 그리고 ‘가을’은 세 번째가 아닌 첫 번째 곡인 것도 그렇군요. 1악장 ‘적갈색 가을’, 2악장 ‘불타는 숲’, 3악장 ‘사과주 추수’, 4악장 ‘양귀비’의 네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세기의 작곡가 구달이 생각하는 가을은 18, 19세기의 작곡가들과는 많이 다르군요.

이 작품은 미니멀리즘 스타일을 연상케 합니다. 미니멀리즘이란 단순함을 통해 근본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조를 말하는데요, 음악에서는 단순한 선율의 반복과 기초적인 화성 진행을 하는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달은 미니멀리즘 음악을 주로 작곡하는 작곡가는 아니지만, 영상과 결합되면 지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일의 음악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을 듣고 있으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흐름을 따라 유평하는 심리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드네요.

유튜브 검색어 : [howard goodall the seasons](https://www.youtube.com/watch?v=howardgoodallthesasons)